

# 동신대·호남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 교육부 선정...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

동신대와 호남대가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는 제도다.

13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에 따르면 동신대가 최근 교육부 주관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심의 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신대의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공인언어능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만족도, 관리 등을 평가해 심사기준 통과 시 인증대학 혜택을 부여한다.

동신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정원 제한 없이 선발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동신대는 최근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제교육원을 총장직속 기구로 옮기며 대학의 국제화 업무 역량 강화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통해 대학과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호남대(총장 박상철)도 7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을 공인받았다.

호남대는 지난 2017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우수한 교육국제화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우수 외국인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 학위과정 13개 영역과 어학연수과정 10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호남대는 교육 국제화 전략, 국제교류활동, 국제화 환경 및 지원 인프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한 노력 및 활동과 관련한 부문에서 좋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 인증 결과는 11개 언어로 소개되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게시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학특성화사업(국제화) 등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받는다.

호남대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과를 호남대학교의 교육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의 결과로, 앞으로도 유학생 유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2024학년도 수능 '이과 쏠림' 52%...역대 최고

###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분석

### 재수생 포함뎀 비율 더 커져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이 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과 출신이 취업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문이과 통합수능 점수에서도 이과생이 유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과로 수험생들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2(현재 고3) 학생들이 본 교육청 학력평가에서의 사과탐

응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과생 비율이 50%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 비율을 토대로 재수생까지 포함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이과생 최종 비율을 추정해보면 5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2020학년도부터 11월 학력평가에서의 사과탐 응시자 수를 토대로 실제 수능에서의 이과생 비율을 추정해왔는데, 재수생이 합류할 경우 학력평가를 토대로 한 추정치보다 이과생 비율이 2%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종로학원 표본조사에 따르면 재수생 중 이과생 응시 비율도 2023학년도 53.9%에서 2024학년도에는 57.2%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은 2012학년도까지는 30%대에 머물렀지만 이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사·과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과생 비율은 2013학년도에 41.4%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으며 2023학년도에는 50.0%로 집계되면서 50%대에 진입했다.

이과생과 문과생 비율은 2012년도까지만 해도 3:7 정도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과 공부와 문과에 비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의학계열 쏠림 현상도 지금보다는 심화되지 않아서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로학원은 이과의 대학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문과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며 다만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지원을 하는 변수도 있어 대입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 조선대-덴마크 대사관, 해양바이오산업 협력 공동 심포지움

조선대학교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해양헬스케어유효실습센터(조선대 해양센터·센터장 김춘성)와 조선대학교 LINC 3.0사업단(링크사업단)은 최근 조선대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 중회의실에서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 & 덴 블루바이오올클러스터: 덴마크-조선대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간의 공동발전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심포지움에는 김춘성 조선대 해양센터 센터장, 디테(Ditte)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과 오르후스(Aarhus)대학의 메테 올라프 닐세(Mette Olaf Nielsen) 교수가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해조류 기업인 퓨어알가(Pure Algae)사의 이스벤 리미 크리스티안세(Esben Rimi Christianse) 대표와 김경수(DHbio) 대표가 산



최근 열린 '한 & 덴 블루바이오올클러스터:덴마크-조선대 공동심포지움'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업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한 후 양 기관 간의 공동 연구주제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후 완도 신지면 명사십리 해역의 해조류 양식장으로 이동해 현장 감담회를 열었다.

조선대 링크사업단은 2022년부터 해조사료개

발을 위해 관련 기업(㈜DHbio)을 지원해 왔는데 오르후스 대학 메테 교수는 해조류를 이용한 메탄 저감 사료 개발과 해조류의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한 대량 생산 등에 관심을 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여자대학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과 로비에서 MAUM교육원, 제25대 다른 총학생회, 대학인권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근로환경 개선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최근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다.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27명에 대해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했으며 2명이 '폐암 초기' 소견이 나왔다. 1명은 산업재해로 인정됐으며 1명은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을 추진 중에 있다.

'양성 결핵'과 '경계성 결핵' 이상 소견자 753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법령상 급식실은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급식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706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했고,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일제히 점검했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점검과 의무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 337개교에 약 325억원을 투자하는 등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대, 지역주민들에 호심기념도서관 개방

### 도서대출·열람실 이용 서비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호심기념도서관을 개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이에 따라 남구 주민들은 광주대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서비스와 열람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코로나19 등 질병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임행택 호심기념도서관장은 "광주대학교의 훌륭한 도서관 시설과 풍부한 전문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도서관 개방 이유를 밝혔다.

도서관 이용을 희망하는 남구 주민들은 최초 방



문 시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 예치금(5만 원, 추후 반환)과 도서관 이용 카드 발급 수수료(3천 원)를 지참하면 된다. 문의 광주대학교 도서관(670-2684).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